

	<b>논 평</b>		<b>충남도당</b>
2016년 10월 5일(수)		담 당 : 이영구 정책실장 대변인 : 박정현(010-3383-0068) 김 연(010-3355-4074)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81-2, 승지빌딩 5층 / 041-569-1500, 010-2390-6824			

**“스포츠와 함께 풍성한 문화와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충청남도를 넘어 전국이 화합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제97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 7일부터 7일간 아산시를 중심으로 충남에서 개최된다.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충남에서 진행되는 행사이다.

47개 종목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누어 32,000여명의 선수와 임원, 심판, 운영요원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체전에 문화를 더하여, 행사기간 동안 온양온천역 광장 등에서 다양한 문화축제가 벌어진다 고 하니 전국의 방문객들이 충남의 흥취에 푹 빠져들 것이라 기대된다.

주최기관인 대한체육회와 주관기관인 충청남도, 도교육청, 도체육회 임직원 등이 준비과정에서 보여준 많은 노고에 210만 충남도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 개최지역인 아산시민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특별히 동향의 애뜻한 마음을 담아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전국체전이라는 큰 행사를 개최한 저력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 박완주)은 전국 17개 시도의 명예를 걸고 진행되는 정정당당한 경쟁을 응원한다. 정정당당함이 비단 체육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등 우리사회 전 분야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노력하겠다.

모쪼록 제97회 전국체전이 스포츠와 함께 풍성한 문화와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충청남도를 넘어 전국이 화합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